

생명의료윤리학(4): 인공수정의 윤리

I. 들어가는 말 : 유전공학의 혁명

1987년 3에 미국에서는 의료계, 아니 사회 전체를 떠들썩하게 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 그것은 다름 아닌 <베이비 M> 사건이다. 이 사건의 대략적인 개요는 다음과 같다.

생화학자인 스텐과 소아과 의사인 그의 아내는 만약에 임신을 하게 되면 생명을 잃을지 모른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이 부부는 자신들의 피가 섞인 아이를 갖고 싶어 현대 의학의 힘을 빌리기로 하였다. 즉, 이들은 자신들의 정자와 난세포를 추출하여 자궁 외에서 수정시킨 다음 이를 다른 여자의 자궁에 착상시키기로 하였다. 그래서 스텐 부부는 제 3자인 화이트헤드 부인과 의료비는 별도로 하고 아이를 낳아주는 대가로 일만 불을 지불하기로 정식 계약을 맺었다. 물론 이 계약서에는 화이트헤드 부인이 모자 관계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명문화되어 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 9개월만에 화이트헤드 부인은 정상아를 분만하였다.

그런데 화이트헤드 부인은 9개월 동안 자기 배속에서 자란 아이에 대해 강한 모성애가 일어나, 이 아이를 자기 자녀로 출생 신고를 하고 아이와 함께 멀리 도망가 버렸다. 그래서 스텐 부부는 계약불이행을 들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¹⁾

이 사건은 1988년 뉴 저지 대법원이 화이트헤드 부인에게 모권이 있다는 판결로 내림으로써 일단 중지부를 찍었다. 법원은 '아이를 파는'(Baby-selling) 계약을 불법으로 발표하였지만, 자기 피가 섞인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것은 모든 부부의 염원이기에, 이러한 '비정상적인 자녀 갖기'는 여전히 세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러한 일은 사실 의학이 발달되기 전에도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이다. 물론 우리 나라에서도 '씨받이'가 있기는 했으나 <베이비 M> 사건과는 그 종류가 다르다. 씨받이의 경우 성관계가 전제되어 성윤리의 물음이 제기되나, <베이비 M> 사건의 경우는 성관계가 개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씨받이 관행은 구약 성경에도 나타난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자기 몸을 통해 아브라함의 자녀를 갖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 종 하갈을 통해 아이를 가질 것을 아브라함에게 권하고 그 말에 따라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었다. 야곱의 아내 라헬 역시 하녀 빌라를 야곱에게 주어 자녀를 갖게 하였다.

이처럼 자기 아이 아닌 타인의 아이를 낳아주는 여자를 대리모(surrogate mother)라 한다. 넓은 의미로 보면 우리 나라나 구약의 씨받이도 대리모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순수한 의미의 대리모는 성관계 없이 타인의 아이를 낳아주는 여자로, 인공수정(artificail in semination), 특히 체외수정(In Vitro Fertilization) 덕택이라 할 수 있다. 필자는 대리모의 윤리를 논하기에 앞서 그것을 가능케 한 인공수정 일반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살펴보면서 논의를 이끌어가고자 한다.

1) 이 <베이비 M>사건의 개요는, 김용준, "과학의 역사성", 김용준외, 『현대과학과 윤리』(서울:민음사, 1989), pp. 11-12에서 발췌 인용하였다.

II. 인공수정

의사들은 자기의 연구를 '질병과의 전쟁'이라는 은유적 표현을 쓴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지휘관이 최선을 다하듯이, 의사들도 질병을 퇴치하기 위해 인간 두뇌가 허락하는 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질병은 여러가지 원인에서 발생하지만, 유전인자로 인해 발생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와트슨과 크릭이 DNA 이중나선구조를 발견함에 따라 모든 생명체를 규정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바로 유전인자임이 밝혀졌다. 그래서 유전인자를 연구하는 유전학이 생기게 되었으며, 이를 실제 생활과 연관시켜 "유전자를 인공 조작하여 새로이 유용한 생명체를 개조 또는 창조하는 공학기술"¹⁾로 발전된 것이 바로 유전공학(genetic engineering)이다.

유전공학의 발전은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윤리적 문제를 야기한다.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는 인공수정, 무성생식, 유전인자 선별 프로그램, DNA 구조의 재조합 등의 문제를 들 수 있다.²⁾ 이 소논문에서는 유전공학이 제기하는 이 모든 문제를 다룰 수는 없고 다만 인공수정과 관련된 몇 가지 윤리적 문제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인공수정은, 우리말이나 영어가 암시하듯이, 자연적인 성관계를 통해 정자와 난세포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인위적으로 정자와 난세포를 결합시킨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결국 인공수정을 하게 되면, 생식에 있어서 그 출발점이 되는 정자와 난세포의 결합 내지 수정란의 자궁 착상에 인간의 의도가 개입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수정은 자연적인 수정과 인공수정으로 대별되게 된다.

인공수정은 다시 둘로 구분할 수 있다. 그 기준은 인공수정이 어디에서

1) 한국카톨릭의사협회(편), 『醫學倫理』(서울:수문사, 1984), p. 336.

2) 유전자 조작에 대한 윤리적 물음을 학계에 정식으로 제기한 자는 버나드 데이비스이다. 그는 1970년 Science지에 발표한 '인간 유전자 조작의 전망'이라는 논문을 통해, 체세포 변환(somatic cell alteration), 생식세포 변환(germ cell alteration), 행위의 유전적 조절(genetic modification of behavior), 무성생식에 의한 복제(coping by asexual reproduction), 성의 사전 결정(pre determination of sex), 선택적 재생산(selective reproduction) 등의 여섯 가지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루어지는가에 따른 분류이다. 즉, 정자와 난자의 만남이 체내에서 이루어지는 '체내수정'과 그것이 몸밖에서 이루어지는 '체외수정'이 있다." 체외수정의 경우, 정자와 난자의 결합이 대부분 시험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체외수정을 통해 태어난 아이를 우리는 '시험관 아기'라고 부른다.

체내수정이든 체외수정이든 간에, 그 목적은 임신에 있다. 인공태반이 개발되지 않는 한, 아직까지는 여자의 자궁을 빌리지 않고서는 아이가 태어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인공수정에 대해 다양한 케이스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앞에서 고찰한 수정의 장소 이외에도, 우리는 정자 제공자가 누구냐, 난세포 제공자가 누구냐, 실제 임신녀가 누구인가 등에 따라 인공수정을 분류할 수 있다. 이를 하나의 도표로 나타내면 <표1>과 같다.

각 유형의 인공수정이 도덕적으로 허용가능한가의 물음을 다루기에 앞서 각 유형의 인공수정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요구된다. 여기서는 일단 성관계에 의한 임신은 제외하였다. 대리모 자체의 도덕성을 논할 경우에는 성관계에 의한 씨받이나 씨내리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인공수정은 그 기본전제가 자연적인 성관계를 배제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체내수정의 경우 난자 제공자와 임신녀는 동일인이다. 그래서 총 12가지 유형의 인공수정이 가능하다.

첫째, 배우자간 체내수정과 배우자간 체외수정은 단지 신체상의 결합 때문에 행해지는 인공수정으로 정자 제공자, 난자 제공자, 임신녀가 모두 동일하다는 특성을 지닌다.

둘째, 대리모란 이름의 인공수정은 배우자 이외의 여자에게 수정란을 착

1) 일상적으로 말하는 인공수정은 필자의 입장에서는 체내수정에 해당되고, 필자의 인공수정은 체내수정과 체외수정 모두를 포함한다. 반면에 김영진 교수는 필자의 개념과는 달리 자연적 수정과 인공적 수정으로 나눈 다음, 인공적 수정을 다시 체내인공수정과 체외인공수정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필자는 경제성의 원칙에 따라 그냥 체내수정과 체외수정이란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김영진,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에 대한 도덕적 진단과 처방', 연세대학교의과대학 편, 『의료윤리 자료집』(서울:연세대의과대학, 1997), p.187 참조.

	수정 장소	정자 제공자	난자 제공자	임신녀	명칭 부여
인공수정 방식	체내수정	남 편	부 인	부 인	배우자간 체내수정
			비배우자	비배우자	대리모 I (씨받이)
		비남편	부 인	부 인	대리부 I (씨내리)
			비배우자	비배우자	배우자 없는 인공수정 I
	체외수정	남 편	부 인	부 인	배우자간 체외수정
				비배우자	대리모 II
			비배우자	부 인	비배우자간 체외수정
		비남편	부 인	부 인	대리부 II
				비배우자	대리모 IV
			비배우자	부 인	대리부 III
		비배우자	배우자 없는 인공수정 II		

〈표 1〉

상시키는 경우이다. 대리모 I의 경우는, 성관계가 없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남편의 정자를 배우자 아닌 제 3자에게 수정시키는 전형적인 씨받이에 해당된다. 대리모 II는 남편의 정자와 아내의 난세포를 체외에서 수정시켜, 제 3의 자궁에 임신시키는 인공적으로, 대리모의 전형적인 유형이다. 대리모 III은 체외에서 수정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대리모 I과 동일하다.¹⁾ 대리모 IV는 아내의 난세포가 배우자 아닌 제 3자의 정자와 체외에서 수정

1) 대리모 III과 배우자 없는 인공수정 II의 경우 난자 제공자의 비배우자'와 수정란 담지자의 비배우자'가 서로 다를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차이가 도덕적으로 중요할 수도 있지만, 이 류의 인공수정은 현실적으로 거의 일어나지 않고, 또 이런 세부사항까지 끌어들이면 논의가 복잡해지지 때문에 논의의 편의상 14가지로 세분하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되어, 제 3의 여자에게 착상시키는 인공수정이다. 이는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존재하기란 극히 어려운 경우이다.

셋째, 대리부란 이름의 인공수정은 남편의 정자가 아닌 제 3의 정자와 부인의 난세포가 수정되어, 아내의 자궁에 착상된 유형이다. 대리부 I과 대리부 II는 성관계가 없는 씨내리에 해당되나, 이 둘은 수정의 장소에 있어서 차이가 날 뿐이다. 대리부 III은 비록 아내의 몸을 빌려 아이가 출생하지만, 엄밀히 말해 결혼한 부부의 유전인자가 전혀 관련되지 않은 특수한 경우이다. 이 역시 대리모 IV와 마찬가지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인 실현가능성은 희박하다.

넷째, 비배우자간 체외수정은 남편의 정자와 제 3자의 난세포를 자궁 밖에서 수정시켜 아내의 자궁에 착상시켜 자녀를 갖는 경우이다.

다섯째, 배우자 없는 인공수정 I과 II는 한 마디로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입양은 하기 싫고 그러면서도 자기 몸을 빌어 아이를 갖는 경우에 해당되며, 다만 그 수정의 장소에 있어서만 양자는 차이가 날 따름이다.

III. 인공수정의 도덕성 물음

인공수정의 도덕성을 일괄적으로 평가하기란 쉽지 않으며,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철학적으로 바람직하지도 않다. 생명의료윤리를 논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종종 인공수정, 체외수정 혹은 대리모 등에 관해 일괄적으로 답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하지만 이는 개념의 명료화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식적인 수준의 접근법이다. 새로운 윤리를 규명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상식의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되고 비판적인 사고가 요구된다. 즉, 우리는 “같은 것은 같게 취급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라”는 정의의 원칙을 충실히 준수하면서, 인공수정의 도덕성을 논해야 한다.

이미 앞 절에서 인공수정을 12가지로 유형화하였다. 여기서 이 12가지

유형의 도덕성을 하나하나 검토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인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대리모 IV와 대리부 III은 논외로 한다. 논란거리가 비교적 적은 경우부터 논의하여 보자. 물론 경제적인 이유나 의학상의 문제점 등도 대리모의 도덕성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지만, 논의의 편의를 위해 논외로 하였다. 또한 대리모나 대리부, 정자 제공자 내지 난자 제공자의 상업적인 거래의 도덕적 허용가능성 물음도 일단 보류하였음을 밝혀두고자 한다.

첫째, 배우자간 체내수정과 체외수정은, 단지 수정 방법상의 의학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는 있지만, 윤리적으로는 반대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수정의 방법이 인위적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정자 제공자는 남편이고, 난자 제공자는 그 아내이고, 수정란이 착상되는 자궁도 그 아내의 자궁이기에 정상적인 임신과 다른 점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정상적인 성관계로 임신이 안되는 것은 남편과 아내 자신의 탓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유전적인 질병이나 자기 능력 밖의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임신을 부도덕하다고 비난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아이를 낳아도 기존의 가족 윤리, 결혼의 신성함 내지 성윤리에 전혀 저촉되지 않는다.

둘째, 대리부 I과 II는 수정의 장소를 제외하고는 동일하다. 수정의 장소는 의학적인 기술상의 문제나 경제적 비용의 문제에 있어서는 중요할지 모르나, 도덕의 물음에서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따라서 이 둘은 적어도 도덕적으로 동일한 평가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즉, 대리부 I이 도덕적으로 허용되면, 대리부 II도 도덕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같은 논리로 대리모 I과 III 역시 도덕적으로 동일한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또 같은 논리로 배우자 없는 인공수정 I과 II 역시 도덕적으로 동일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셋째,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인공수정은 대리모 I과 II, 대리부 I, 비배우자간 체외수정, 그리고 배우자 없는 인공수정 5종류로 압축된다. 도덕적으로 가장 문제가 많은 배우자 없는 인공수정부터

살펴보자. 아직 우리 나라에서는 이런 유형의 인공수정이 거의 없지만, 주로 미국이나 유럽에서 결혼은 하기 싫고 또 신체적인 결합으로 성 관계에 의한 정상적인 임신이 어려운 경우, 아이를 갖기를 원하는 여성들이 이러한 유형의 인공수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인공수정은 일차적으로 결혼 윤리와 가족 윤리를 송두리째 앗아간다. 가족을 통한 자녀 출산이 일상적인 출산의 윤리인데, 이는 결혼을 거부하고 '이기적인' 욕망에서 자녀를 갖는 셈이 된다. 무엇보다 이렇게 태어난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누구이냐의 물음이 제기되어, 아이의 자아 정체성이 위협받고 정상적인 가정 교육도 어렵게 될 것이다. 비록 이러한 인공수정은 한 개인의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장점을 지니지만, 그 도덕적 단점이 이를 훨씬 능가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허용하기란 어렵다고 본다.

넷째, 수정의 장소가 도덕적으로 의미 없다는 점을 받아들이면, 대리부 I 과 비배우자간 체외수정은 남편의 정자와 아내의 난자라는 차이점을 제외하면 다른 차이점이 없다. 즉, 한 아이를 갖는 데 있어서 남자의 피가 중요하냐 아니면 아내의 피가 중요하냐의 물음을 이 두 유형의 인공수정이 제기하고 있다. 대리부 I의 경우는 자녀의 아버지가 누구이냐의 물음이 제기된다. 생물학적으로는 적어도 남편이 그 자녀의 아버지가 될 수는 없으나, 도덕적으로 누가 아버지가 되어야 하는가의 물음은 여전히 남아 있다. 반면에 비배우자간 체외수정의 경우 그 아내는 유전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분명 그 아이의 어머니가 아니다. 그렇다고 생물학적으로도 어머니가 아닌가, 나아가 도덕적으로 아이의 진정한 어머니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의 물음이 제기된다.

지금은 많은 나라가 부계사회로 구성되어 있어 남성의 권리가 우선하고 있기 때문에, 비배우자간의 체외수정은 도덕적으로 허용되고 대리부 I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래서 실제로 있어서는 대리부 I보다는 비배우자간 체외수정의 빈도가 훨씬 더 많다. 또 이에 대한 도덕적 평가는 후자에 대해서 비교적 관대하다. 하지만 가정에서 부부 평등을 받아들이면, 이 둘 역시 도덕적으로 그 차이점을 찾기란 어렵다고 생각한

다. 즉, 어느 하나가 허용되면 다른 하나도 허용되고, 어느 하나가 허용되지 않으면 다른 하나 역시 허용할 수 없게 된다.

나아가 이의 도덕성은 대리모 I의 도덕성과 비교해 보자. 남녀평등을 받아들인다면, 대리부 I은 대리모 I에 비해 그 도덕성의 정도가 뒤떨어지지 않는다.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인공수정의 경우 도덕적으로 중요한 세 요소는 정자 제공자, 난자 제공자, 임신녀 셋이다. 그런데 부부를 중심으로 볼 경우, 대리모 I은 정자 제공자만 남편이고 나머지 둘은 모두 제 3자이다. 반면에 대리부의 경우 정자 제공자만 제 3자이고 나머지, 즉 난자 제공자와 임신녀는 모두 아내이다. 따라서 남성의 '씨'가 중요하다는 전통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남녀평등의 이념을 받아들인다면 대리모 I보다는 대리부 I이 도덕적으로 더 허용 가능하다고 하겠다. 즉, 대리부 I이 도덕적으로 허용 불가능하면, 대리모 I도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체내수정의 경우 대리모 I이, 체외수정의 경우 대리모 II가 그리고 체내?외수정 모두에 관련되는 것으로 대리부 I이 각각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제 절을 바꾸어 이 세 종류의 인공수정이 어떠한 도덕적 문제를 제기하는지 고찰하여 보자.

IV. 대리모의 도덕성 물음

대리모의 도덕성을 논하기에 앞서 대리부 I의 도덕성 물음부터 살펴보자. 이러한 대리부 의료 관행은 대부분 남편의 이상으로 정상적인 임신이 어려운 경우에 실시된다.¹⁾ 성관계 없는 씨내리의 수정방법으로 아기를 갖는 회수가 예상외로 많아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매년 약 20,000명 가량의 아기가 이런 방법으로 출생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는 정확한 통계가

1) 구체적인 이유로 다음 3가지를 들 수 있다. (1)남편이 유전병을 가지고 있어서 자식에게 남겨두고 싶지 않을 때, (2)남편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성관계를 가질 수 없을 때, (3)부인에게서 항체반응을 일으킨다고 생각될 때, 즉 남편과 아내의 혈액형이나 체질이 전혀 맞지 않아 임신이 불가능할 때.

없지만 이런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 나라처럼 입양 문화가 정착되지 않는 사회풍토에서, 자녀를 갖기를 소망하는 부부에게 있어서 이는 정말로 희소식이 될 수 있지만, 이는 도덕적으로 좋지 못한 결과를 낳으리라 생각된다. 그 몇 가지 이유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우리는 정자를 제공하는 남자나 정자은행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정자 제공자의 유전병이나 정자은행의 관리상 허술 혹은 수정시의 실수 등으로 많은 예상치 못한 도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은 상상이 가고도 남는다. 이런 의학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도, 정자를 제공하는 남자가 횡수에 제한 없이 너무 많이 정자를 제공하게 되면, 수많은 이복형제가 태어날 수 있고, 또 이들이 나중에 그 아버지를 알지 못한 채 결혼하게 되면 근친 결혼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근친상간을 금지하는 전통적인 성윤리가 무너지게 된다.

둘째로 우생학적 문제가 제기된다. 즉, 우생학적으로 건강하고 지적 수준이 높은 후세를 얻고, 불구의 가능성이 있는 아이를 피하기 위해 비배우자간 체내수정이 일반화되면,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한 예로써 가문의 중요성이나 가정과 출산의 순수성이 훼손될 소지가 다분하다. 인간이 임신과 태아 선택권을 자유로이 행사하게 되면 자연의 질서가 파괴될 수도 있다.

셋째로 태어난 아이와 관련된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비록 남편이 동의했다 해도, 나중에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아이를 책임지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친권 문제가 발생하며 자녀 부양의 도덕적 책임 문제도 발생한다. 태어난 아이의 자아 정체성 물음도 무시할 수 없다. 칸트가 말한 대로 인간은 누구나 “나는 누구인가”의 물음을 제기하는 형이상학적 존재이다. 그 아이가 청소년이 되어, 대리부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비극이 발생할 수 있다. 물론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이는 아이가 자기 부모를 알 수 있는 권리를 부인하는 것이다. 또한 부모 쪽에서도 아이에게 일평생 거짓말을

하는 꼴이 되고 말기에, 아이의 자아 정체성에 대한 물음은 불가피할 것이다.

대리부 I은 이처럼 도덕적인 측면에서 보아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훨씬 더 많아 도덕적으로 허용하기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III절의 주장을 받아들여, 대리모 I도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결론을 연역적으로 얻게 된다. 이제 남은 문제는 체외수정과 관련된 대리모 II이다. 서두에서 언급한 <베이비 M> 사건은 바로 대리모 II에 해당되는, 도덕적으로 가장 논란이 많은 인공수정의 유형이다. 물론 이러한 인공수정은 남편과 아내의 유전인자를 고스란히 전수받은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도덕적 장점이 있다. 여기서의 이에 대한 도덕적 평가를 내리기에 앞서 대리모 관행이 제기할 수 있는 도덕적 문제를 천착해 보자.

이는 첫째로 어머니임의 문제를 제기한다. 이렇게 하여 태어난 아이는 어머니가 둘이 있게 된다. 그럴 경우 도덕적으로 누가 친엄마가 되어야 하는가의 물음이 제기된다. 유전인자 제공자인가 아니면 임신한 자인가? 한 아이의 형성에 있어서 유전인자 못지 않게 임신 9개월간의 신체적·정서적 발육도 중요하다. 인간의 마음은 그 신체에 수반한다는 심신수반론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이 물음에 대해 쉽게 답하기가 어렵다. 이론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유전인자가 아이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임신 조건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경험적인 데이터도 없다.

또 이 문제는 자기 몸을 대리모로 임대하는 계약의 합법성 물음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전통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팔겠다는 계약은 아무리 자유 의사에 의해 맺어졌다 해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 여기서의 이런 계약의 법적인 합법성의 근거를 묻는 문제 이전에 현행법을 들어 대리모 계약의 부도덕함을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오히려 이런 계약이 허용될 경우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가의 물음이 일차적인 과제이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허용 가능하다면, 친어머니를 누구

로 할 것인가의 물음이 제기된다. 아니 이 후자의 물음이, 대리모 계약의 합법성 물음의 선결조건이 된다. 만약 대리모 자신이 모권을 지닌다면 계약이 성립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물음은 결국 생식 내지 출산에 관한 세계관의 물음으로 귀결되게 된다. 즉, “인간은 결혼하여 그 자녀를 원하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가질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세계관적인 답변에 따라, 대리모에 대한 도덕적 입장이 달라질 것이다.

특히 그 대리모가 고모나 이모인 경우에는 가족윤리의 무질서와 혼란이 일어난다. 실제로 많은 경우 그 부부와 전혀 상관이 없는 제 3자보다는 혈족 관계에 있는 이모나 고모가 대리모가 된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태어난 아이와 대리모 사이의 관계는 종잡을 수 없이 복잡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아이는 대리부의 논의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아 정체성의 위기를 맞볼 것이다.

페미니스트들의 반론으로 우리는 여기서 여자의 임신을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물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대리모의 허용은 결국 여성의 신체를 단순히 태아 담지자로 간주한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태아는 여자의 신체를 통해서만 아이로 성장할 수 있는데, 이 때 여자의 신체는 사과를 담아두는 상자와 같은 역할과 같지 않다는 점이다. 임신수반론자들과 마찬가지로 이들 역시 여자의 신체는 태아의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대리모 관행은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로 잉여 수정란의 문제를 생각해 보자. 이는 비단 대리모 II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체외수정 전반에 관련된 물음이다. 인간 생명체의 시작을 어디로 잡을 것인가의 물음에 있어서 전통적인 보수주의자들은 수정 순간을 잡는다. 이렇게 되면 체외에서 만들어진 생명체는 모두 죽임을 당하지 않을 생명권을 지니게 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체외수정시에는 수정란을 많이 만들어 그 중 하나만 성공시키고 나머지는 폐기 내지 배아은행에 보관한다. 보수주의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 모든 행위는 임

신중절과 같은 살인에 해당된다. 여기서 우리는 선택의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체외수정 자체가 부도덕하다고 비난할 것인가, 아니면 인간 생명체의 출발점으로서의 수정 순간을 포기할 것인가? 이 역시 인간 생명체의 출발점에 관한 세계관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물음이다.

결론 : 기독교 세계관적인 답변

이제까지 논의는 어디까지나 인본주의 내에서 인공수정의 도덕성을 합리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인공수정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면서 기독교 세계관적인 답을 찾아야 할 때이다.

인공수정이 성 관계에 해당되는가의 물음을 물을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가족윤리와 출산의 윤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성경에서는 <결혼-성관계-임신-출산> 이 네 가지가 하나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즉, 이 네 가지는 구분불가능하고, 특히 출산은 나머지 셋과 구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입장이다. 따라서 우리는 결혼이 전제되지 않는 자녀란 생각할 수 없다. 물론 구약에서는 일부다처제를 허용하긴 했지만, 여전히 결혼 구조 내에서의 출산의 윤리를 말한다. 실제로 다윗은 밋세바와의 간음을 통해 자녀를 얻었지만, 그 자녀를 결국 하나님께서는 치시고 말았지 않았는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대리모이든지 정자이든 난자이든지간에 생식과 연관된일체의 상거래를 성경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성경은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주고 정자나 난자를 사고 파는 행위나, 혹은 여자의 몸을 사는 대리모 관행은 허용될 수 없다. 이는 인간을 상품화하는 꼴이 된다. 인간의 신체 기관이 상품화되려면, 신체 기관에 대한 개인의 소유권과 처분권이 동시에 인정되어야 한다. 설사 내 몸이 나의 것이라 해도, 그로부터 곧 내 몸을 내가·마음대로 처분해도 좋다는 결론이 귀결되지 않는다. 인간에게 신체의

처분권이 있는가의 물음은 성경에서 그 답을 직접 찾기는 어렵다. 다만 인간에게는 생명을 마음대로 처분할 권리가 없다는 점을 자살에 대한 반대를 통해서 읽을 수 있다. 또한 어느 물건이든지 상품화되려면, 그 상품에 대한 품질보증이 가능하고, 또 그 상품으로 인한 사후 서비스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정자, 난자, 여자의 신체 등은 이러한 품질 보증과 서비스 보장이 전혀 되지 않으며, 또 될 수도 없다. 따라서 정자와 난자, 혹은 자기 몸을 대리모로 상업적으로 파는 행위는 성경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문제는 자발적으로 대리모가 되어 주겠다는 하는 경우는 어떠한가? 특히 입양과 연관되면 이 문제는 심각해진다. 입양은 성경적으로 금지할 법이 없고 오히려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아닌가? 그러면 아이를 갖지 못한 부부를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원해서 대리모 노릇을 하는 경우는 어떠한가? 여기서 우리는 이미 태어난 인간 생명체와 아직 형성되지 않은 미래의 인간 생명체를 구분해야 할 것이다. 즉, 인간 생명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인간이 자의적으로 새로운 생명을 만들 권리는 없다. 하지만 이미 태어난 아이는 하나님의 섭리 하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돌볼 책임이 있다. 전자는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것이라면, 후자는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길이다. 우리는 '이웃 사랑'을 무제한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며,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보존이라는 한계 내에서 이웃을 사랑해야 할 것이다.

물론 보수주의적 신앙을 가진 자는 인공수정 자체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생명 창조의 권리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자연적인 임신이 안 되는 자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으로, 자녀를 가진 자가 그렇지 못한 자를 정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성을 주셨고, 그 이성이 인공수정 의술을 발달시키는 것을 허용하였다면, 인공수정 의술 역시 하나님이 준 선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유한한 인간이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문제에 대해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기란 불가능하다. 이 점을 염두에 둔다면 적어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배우자간의 체내?외수정은 수용해도 성경적 세계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자기 잘못된 아닌 신체상의 결함으로 자녀를 갖지 못한 경우에는, 자연적인 성관계가 없이 임신과 출산을 하여도, 그 의도가 순수하다면 도덕적으로도 신앙적으로 허용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인간 생명의 출발점을 어디로 볼 것인가의 물음이 제기된다. 배우자간 체외수정의 경우 잉여수정란의 폐기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사실 다루기 어려운 물음이다. 수정란을 인간 생명체의 시작으로 보면 잉여수정란의 폐기나 그것을 실험대상으로 삼는 일체의 과학적 활동이 중지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곧 생식이나 유전적 질병 치료를 위한 유전공학을 포함하여 일체의 유전공학 활동의 포기를 의미한다. 배우자간 체외수정을 허용할 수 있는 길은 논리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인간 생명체의 시작을 수정 순간으로 보면서 배우자간의 체외수정을 특수한 예외 사례로 보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수정의 도덕적 의미를 포기하고, 인간 생명체의 시작을 착상 순간으로 잡는 방법이다. 이론적으로는 후자의 방법이 더 합당하다. 그러나 이 입장은 보수주의적인 신학과 어긋난다는 점이다. 사실 이 물음은 쉽게 결정내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에 필자는 열린 물음으로 남겨두고자 한다.¹⁾

결론적으로 무엇이 구조이고 무엇이 방향인가의 물음이 제기된다. 이는 곧 구조에 해당하는 것의 구획선을 어디에 그을 것인가의 물음이다. 필자는 체내수정이든 체외수정이든, 인공수정은 구조에 해당되고, 대리모는 방향에, 그것도 잘못된 방향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인공수정 자체를 비난할 필요는 없다. 배우자간 인공수정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그 방향이 잘못되어 인본주의적인, 자기애로 인

1))인간 생명체의 시작 내지 수정란의 도덕적 지위에 관한 물음은, 줄고 “임신중절 : 태아의 도덕

적 지위”, 『신앙과 학문』 창간호, pp. 101-118을 참조하라.

해 대리모나 배우자 없는 자녀 갖기를 인공수정을 통해 추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도전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많은 가능성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는 항상 단호히 금하셨다.¹⁾ 하나님은 창조 질서에 도전하는 자를 용서하지 않으신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범죄와 바벨탑 사건은 이를 잘 설명해 준다. 결코 인간이 하나님과 동등해지는 것을 하나님은 방치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무엇이나 해도 좋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위해 포기하는 신앙이 요구되는 시대이다. ☞

1) 맹용길, 『生命醫療倫理』(서울:장로회신학대학출판부, 1987), p. 211.